

원희룡 장관, “장마·폭염 대비,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현장 구축에 T/C 조종사도 함께하여 주시길”

- 10일 오전,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(월) 10시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·폭염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점검하였다.
- 원 장관은 해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현황과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, 타워크레인 임대사, 조종사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,
 - “올해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”며, “한 번의 사고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”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원 장관은 “타워크레인 조종사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”이라며,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,
 -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, 본인들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.
-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는,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, 타워크레인 설·해체 노조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.
 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”라고 강조하였고, 한국노총 측은 월레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는 등 서로 의견을 모았으며,
 - 노·사·민·정 협의체 구성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원 장관은 앞으로 “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7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